

기러기 가족의 여가 복지를 위한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주관적 웰빙의 관계

이유진¹ · 황선환²

¹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연구교수 · ²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the Separation Period, the Leisure Hour Spent with Americans,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the Leisure Welfare of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Lee, Yujin¹ · Hwang, Sunhwan²

^{1,2}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acculturation in the life experience of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and to improve their subjective well-being.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and 161 valid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e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vers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onger the separation period of the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the more subjective well-being. Second, leisure hour spent with American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paration period and subjective well-being. Third, in the group with a separation period of 5 years or more, the group with more leisure hours with Americans showed higher subjective well-being than the group with less leisure hours. Unlike the beginning when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appeared in the early days, negative perceptions about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and difficulties in acculturation are being alleviated with the progress of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Nevertheless, the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can feel a temporary imbalance in terms of human life. Finding balance in imbalance is not ea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o provide a more effective answer that affects the emotional balance of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Key words : Korean Transnational Split Families(KTSF), Leisure Welfare, Leisure Hour with Americans, Separation Period, Subjective Well-Being

주요어 : 기러기 가족, 여가 복지,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분거 기간, 주관적 웰빙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S1A2A2041103).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Sunhwan

E-mail: shhwang@uos.ac.kr

Received: April, 30, 2022 Revised: June, 08, 2022 Accepted: June, 17, 20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뿌리로써 인간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관행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정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경영학, 여가학, 체육학 등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이론적 관점에 따라 거시적인 가족연구가 이루어졌다(전리나, 2008).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가족의 구조와 체계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Hofstede, Hofstede, & Minkov, 2014),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활문화의 형태인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에 관한 연구가 관심 받고 있다.

다양한 초국가적 가족의 형태 중에서 '기러기 가족'은 독특한 형태와 성격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가져왔다. 아직까지 학술적 용어로 합의되지 않은 신조어이지만 '기러기 가족'은 1990년대 초 조기유학의 열풍이 높아짐에 따라 기러기 가족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2000년대 초부터 기러기 가족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기러기 가족에 대한 국내 연구 주제는 기러기 경험, 생활환경의 변화, 적응, 부부관계, 갈등과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현상들이 분석되고 있다(예: 김선미, 2007; 김성숙, 2006; 김양호, 김태현, 2009; 김양희, 장은정, 2004; 이두휴, 2008; 최양숙, 2006, 2008 등).

기러기 가족에 대하여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기러기 가족 현상에 대해 이분법적 관점에 따른 대립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적 측면과 비전통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러기 가족의 성공과 실패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고 있다. 강유진(2009)은 기러기

가족 현상을 단일한 이미지로 간주하여 성공과 실패 혹은 유익과 무익을 논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몇몇 언론보도의 입장에 따르면, 가족의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국가적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고, 가족 간 불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주호석, 2018, 03. 25).

이처럼 기러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극명하게 다른 관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기러기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김기화, 양성은, 2012). 따라서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초국가적 가족의 삶에 적응해 가는 지, 기러기 가족의 삶의 경로를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해 나아가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Gullahom and Gullahom(1963)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이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으로 허니문 단계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문화충격과 동시에 정신건강과 심리적 만족감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러기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혼돈의 시기를 겪으며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Berry, 1998). 이러한 문화충격의 시기가 지나고 현지의 언어와 문화, 관습 등을 배워가면서 문화적응을 해가는 과정을 문화적응이론(U-곡선)이라고 하며, 문화적응양상에 따라 교차문화적응의 과정(W-곡선)을 보이기도 한다(Gullahom & Gullahom, 1963).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성별, 연령, 거주형태,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 생태학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지원, 그리고 성격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라도 적응력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새로운 문화와 언어, 행동양식 등을 학습해가면

서 사회 준거집단의 규범과 가치 수용에 익숙해지고,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아지게 된다.

요컨대, 이민자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김미옥, 김민주, 2011; 남은영, 박수정, 김영빈, 2010; 주형철, 신종화, 2013; 차성란, 2011; Hurly & Walker, 2017). 이민자가 원주민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집단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으로 설명하는데, 누구와 어떠한 여가를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즐기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의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박세혁, 2019).

K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이민자들은 미국사람들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른 국가나 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적응의 속도와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선행연구로 말미암아 이주국에서 내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정도는 분명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주관적 웰빙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 분거가족의 형태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어떠한 변형성을 내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문화적응에 대한 U-곡선의 관점에서 초국가적 가족의 여가 복지를 위한 삶의 경험과정으로부터의 문화적응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는 여가 복지 차원에서 기러기 가족의 정서적인 균형과 주관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이 연구는 사전에 노스켈로라이나주립대학 생명윤리위원회(9191-515-8754)의 연구윤리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18년 배우자와 서로 다른 나라(미국과 한국)에 살며 기러기 생활을 하는 가족(KTSF: Korean transnational-split families)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과 미국에서 배우자와 분거 중인 KTSF 성인 회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잠재 설문 응답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KTSF 51개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국 내 165개 한인 단체에게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인 단체는 미국 주요 도시에 있는 30개 지역 한인회와 57개 한인교회, 미국 전역의 다른 대학에 있는 78개 한인 학생회가 포함됐다. 215개 기관에 연락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설문지 배포 허가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KTSF의 8개 온라인 커뮤니티, 10개 한인회, 19개 한인 학생회, 6개 한국교회의 웹사이트에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를 허가받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배포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인 및 전문 네트워크에 연락을 시도했다.

총 326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110건의 데이터를 삭제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상응(아이가 없는 55명의 응답자)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러기 부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4	14.9
	여	137	85.1
연령	20대	14	8.7
	30대	82	50.9
	40대	51	31.7
	50대	14	8.7
최종학력	고졸 이하	5	3.1
	전문대학 졸업	17	10.6
	일부 대학 교육	13	8.1
	대학교 졸업	62	38.5
	대학원 이상	64	39.8
월 가계 소득 (한화)	400만원 미만	23	14.1
	400-599만원	49	30.5
	600-799만원	21	13.1
	800-099만원	39	24.3
	1000만원 이상	26	16.1
혼인 기간	결측	3	1.9
	5년 이하	63	39.1
	6-10년	30	18.6
	11-15년	33	20.5
	16-20년	11	6.8
분거 (기러기) 기간	20-45년	22	13.7
	결측	2	1.2
	2년 이하	85	52.8
	3-4년	35	21.7
	5년 이상	41	25.5
합		161	100.0

혹은 어머니로 총 161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제 분석에 활용한 16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 내용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여가학 교수 2명과 한국의 체육학 교수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받았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구소득, 혼인 기간, 분거(기러기) 기간, 가족 간 의사소통빈도, 한국미디어 접촉 정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주관적 웰빙이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전화, 이메일, Skype 등, 기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주당 평균횟수를 측정하였으며, 통신 빈도의 평균 점수는 총 통신횟수를 사용방법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한국 미디어 접촉 정도는 한국 TV 시청, 라디오 듣기, 신문 읽기, 영화 보기, 인터넷 사이트 방문 등의 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실시하는지 측정하였다. 미디어 접촉 정도의 평균 점수는 총 접촉 횟수를 활동종류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응답자의 여가 참여 패턴은 Ragheb(1980)의 여가 참여 척도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6가지 활동 유형(부록 1)으로 분류된 55개의 여가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응답자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참여한 활동을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응답자의 여가 레퍼토리는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여가활동 라이브러리(Iso-Ahola 1980)에서 선택된 여가활동의 수를 결합하여 계산하였다.

여가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선택한 각 활동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참여했는지 응답하도록 요청했으며, 여가빈도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각 활동에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여가시간의 합산 점수는 참여하는 모든 여가활동을 합한 시간을 참여활동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이 활동을 누구(혼자, 한국인, 미국인, 기타)와 함께 참여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웰빙(SWB: Subjective Well-Being)은 SPANE(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에서 계산된 점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SPANE는 지난 4주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억해 보고, 각각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매우 드물게 또는 전혀' = '1점'에서 '매우 자주 또는 항상' = '5점' 범위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는 12문항 설문지이다. 긍정적인 감정(긍정적인, 기쁘다, 만족하다, 유쾌하다, 좋다,

행복하다)과 부정적인 감정(부정적인, 나쁘다, 불쾌하다, 슬프다, 두렵다, 화난다)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척도를 SWB의 척도로 활용하였으며, 5점 만점으로 측정된 각 문항의 값들을 더해 최종 주관적 웰빙 점수로 산출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해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로 구성된 변인(성별)은 더미 변수로 변경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에 통제변수(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 한국 미디어 접촉, 의사소통 빈도)를 삽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그룹간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	1								
2. 연령	-.117	1							
3. 최종학력	.047	.050	1						
4. 소득수준	-.195*	.276**	.068	1					
5. 한국미디어접촉	-.004	.105	.058	.057	1				
6. 의사소통 빈도	-.036	.134	.101	.012	.077	1			
7. 분거 기간	-.140	.342**	-.038	.184*	-.070	-.013	1		
8.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059	-.004	.006	.135	.189*	.117	.004	1	
9. 주관적 웰빙	-.054	.025	.036	.264**	.011	-.080	.184*	.059	1

* $p < .05$, ** $p < .01$

III. 결과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주요 측정변인인 분거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주관적 웰빙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거 기간의 평균은 3.45(±3.50),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평균은 2.21(±3.94), 주관적 웰빙의 평균은 21.28(±4.80) 이었다.

표 2. 기술통계분석

변인	Min	Max	M	SD
분거 기간(년)	0	19	3.45	3.50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시간)	0	20	2.21	3.94
주관적 웰빙	8	30	21.28	4.80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는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표 3>. 분석결과 -.195 ~ .342로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내에서 정적(+),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8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절효과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거 기간($\beta = .173, p < .05$)이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분거 기간과 미국인과 보내는 시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거 기간*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beta = .267, p < .05$)은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이 추가된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adjusted $R^2 = .058 \rightarrow .083, F \text{ change} = 4.994, p < .05$)가 높아 모형2에 추가된 분거 기간*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소득수준은 1단계($\beta = .254, p < .05$), 2단계($\beta = .280, p < .05$) 모두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Follow-up test

분거 기간 \times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다. 상호작용 항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상호작용 항의 집단을 구분하였다(<표 5>).

표 5.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군집

변인	구분	n	%
분거 기간	2년 이하	85	52.8
	3-4년	35	21.7
	5년 이상	41	25.5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평균 이하	114	70.8
	평균 이상	47	29.2

분거 기간은 2년 이하(52.8%), 3~4년(21.7%), 5년 이상(25.5%)으로 분류하였으며,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평균 이하(70.8%), 평균 이상(29.2%)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분거 기간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Model 1			Model 2			
	b	β	VIF	b	β	VIF	
constant	19.740			20.566			
통제 변수	성별	.080	.006	1.059	.212	.016	1.063
	연령	-.060	-.097	1.249	-.072	-.117	1.263
	최종학력	.151	.037	1.025	.065	.016	1.040
	소득수준	.217	.254*	1.152	.239	.280**	1.176
	한국미디어접촉	.004	.017	1.067	.012	.048	1.100
	의사소통빈도	-.048	-.076	1.050	-.039	-.063	1.056
예측 변수	Ⓐ 분거 기간	.237	.173*	1.176	.093	.068	1.559
	Ⓑ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035	.029	1.074	-.184	-.151	2.199
	Ⓐ \times Ⓑ				.065	.267*	2.495
R^2			.058		.083		
$\Delta F(p\text{-value})$						4.994($p\text{-value} = .027$)	

종속변인: 주관적 웰빙, Durbin-Watson= 1.755, * $p < .05$, ** $p < .01$

기러기 가족의 여가 복지를 위한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주관적 웰빙의 관계

표 6. 분거 기간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

	여가시간 평균 이하		여가시간 평균 이상		t (p)
	n	M(SD)	n	M(SD)	
2년 이하	59	20.51(±4.98)	26	21.20(±3.77)	-0.695(p>.05)
3-4년	26	21.77(±5.74)	9	22.33(±3.77)	-0.334(p>.05)
5년 이상	29	20.90(±4.92)	12	24.33(±3.14)	-2.668(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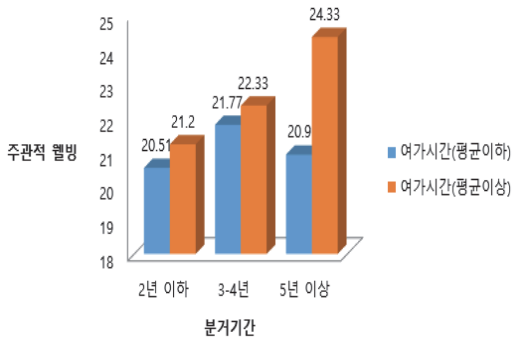


그림1. 분거 기간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

첫째, 분거 기간이 2년 이하인 집단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695, 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M=21.20$)이 평균 이하인 집단($M=20.51$)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거 기간이 3-4년 집단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334, 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M=22.33$)이 평균 이하인 집단($M=21.77$)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거 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668,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M=24.33$)이 평균 이하인 집단($M=20.90$)보다 주관적 웰

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거 기간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 기러기 가족의 형태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어떠한 변형성을 내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시각은 자녀교육을 위해 일정 기간 분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문제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한 가족구조’라는 왜곡된 시각이 조성되어 있다(김기화, 양성은, 2012). 이를테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 가사 일의 어려움, 의식주 감당과 같은 가정환경의 변화, 자녀 양육역할의 가중, 재정적 부담 등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llahom and Gullahom(1963)의 문화적응 ‘U-그래프’에 따르면, 허니문 단계를 지나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문화충격의 단계에서는 하향곡선을 이룬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의 언어와 행동양식에 적응하는 문화적응 단계에서는 상향곡선을 이루는 것처럼, 기러기 가족의 주관적 웰빙을 의미하는 정신건강과 심리적 만족감의 정도는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떨어져 있는 삶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력이 증가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 갈 수는 있으나, 분거기간의

양만으로 기러기 가족의 주관적 웰빙을 보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생변수들을 통제하였기에 분거 기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의 명암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 연구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단순히 분거 기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관적 웰빙의 변화 궤적은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분거 기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의성에 대해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과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상호작용항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을 촉진시켜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써 의사소통 맥락, 즉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Haagsman, Mazzucato, & Dito, 2015; Seppala, Rossonando, & Doty, 2013). 즉, 여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완화하고 이민과 부정적인 삶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다(Glover, 2018; Stodolska, 2007). Lee, Hwang, & Stodolska(2020)는 여가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과 빈도, 여가 레퍼토리의 크기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연관성의 강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즉, 여가 레퍼토리가 다양할수록 문화에 대한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화 및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 문화 자본의 양이 보완될 수 있다(Guinn, 1995; Stalker, 2011). 비단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적응이 항상 직선(선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언어습득의 기회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의 정도도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관찰할만한 점은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크기에 따라서 주관적 웰빙의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분거 기간이 5년 이상 집단에서, 미

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이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거 기간이 짧은 집단에서는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이 많던, 적든지 간에 주관적 웰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문화적응의 U자형 곡선에서도 밝혀졌듯이, 두 문화의 언어 및 생활 습관 모두에 대해 유능할수록 주관적 웰빙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국민들이 아닌 원주민과 여가를 향유함으로써 고국에 대한 향수병,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이 점차 허물어지며, 더 유연하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가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친분을 쌓아가며, 긍정적인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주관적 웰빙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을 보다 더 높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기러기 가족의 여가 복지를 위한 삶의 경험과정에서 문화적응의 실재를 파악하고 주관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첫째,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분거 기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거 기간이 5년 이상 집단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기러기 가족의 등장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문화적응의 어려움도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인

인간의 삶 측면에서 기러기 가족을 일시적인 불균형상태로 여길 수 있다. 불균형 속에서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초국가적 가족의 정서적 균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러기 가족의 주관적 웰빙을 위한 분거 기간과 문화적응 U곡선의 패턴 검증이 요구된다. 곡선추정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가 경험의 양만큼 질적인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원주민과 보내는 여가 레퍼토리에 관한 정성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9). 기러기가족의 초국적 적응전략 및 가족 경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05-221.
- 김기화, 양성은(2012). 기러기가족의 분거 경험에 관한 사회교환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50(2), 11-23.
- 김미옥, 김민주(2011). 정성적연구: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욕구 및 여가행태. *관광학연구*, 35(10), 97-120.
- 김선미(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171-189.
- 김성숙(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양호, 김태현(2009). 장기분거 가족에 대한 일 연구: 기러기가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7-326.
- 김양희, 장은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남은영, 박수정, 김영빈(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여가와 문화적응의 탐색. *교육문화연구*, 16(1), 169-195.
- 박세혁(2019). 행복을 탐구하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플러스. *대한미디어: 서울*
- 이두휴(2008). 기러기 아빠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연구. *교육문제연구*, 32, 21-4.
- 진리나(2008). 기러기아빠의 여가제약과 극복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주형철, 신종화(2013). 중국인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여가만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8(3), 51-65.
- 주호석(2018, 03. 25).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72474#home>.
- 차성란(2011).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가족자원경영과정*, 15(1), 51-70.
- 최양숙(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Glover, T. D.(2018). All the lonely people: Social isolation and the promise and pitfalls of leisure. *Leisure Sciences*, 40, 25-35.
- Guinn, B.(1995). The importance of leisure satisfaction to the aging leisure repertoire. *Journal of Wellness Perspectives*, 12(1), 42-50.
- Gullahom, J. T., & Gullahom, J. E.(1963).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 Journal of Social Issues(online)*. 19(3), 33-47.
- Haagsman, K., Mazzucato, V., & Dito, B. B.(2015).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igrant parents: Angolan and Nigerian parents in the Netherlands. *Ethnic and Racial Studies*, 38(15), 2652-2671.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2014).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차재호·나은영 역). 학지사(원저 출판 2010).
- Hurly, J., & Walker, G. J.(2017). When you see nature, nature give you something inside: The role of nature-based leisure in fostering refugee well-being in Canada. *Leisure Sciences*, 41(4), 260-277.
-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A: Wm. C. Brown Co. Publishers.
- Kim, J.(2012). Exploring the experience of intergroup contact and the value of recreation activities in facilitating positive intergroup interactions of immigrants. *Leisure Sciences*, 34, 72-87.
- Lee, K. J., Hwang, S. H., & Stodolska, M.(2020).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parents of Korean transnational-split families. *Current Psychology*. 10.1007/s12144-020-00852-8.
- Ragheb, M. 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38-149.
- Seppala, E., Rossomando, T., & Doty, J. R.(2013). Social connection and compassion: Important predictors of health and well-being.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80(2), 411-430.
- Stalker, G. J.(2011). Leisure diversity as an indicator of cultural capital. *Leisure Sciences*, 33(2), 81-102.
- Stodolska, M.(2007). Social networks, ethnic enclosure, and leisure behavior of immigrants from Korea, Mexico, and Poland. *Leisure/Loisir*, 31, 277-324.